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야만 그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승천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인상 깊은 장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열왕기하 2:9-14).

오늘날에도 주님의 승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와 똑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천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으니 더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는 의미는 좀처럼 강조되지 않습니다. 승천은 십자가와 부활처럼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심

경건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믿음의 기초에는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것이 속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16

영광은 그분이 올라가신 목적지이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들어가시는 일 전체가 영광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고, 하늘로 들어가시는 그분을 호위했습니다.

그분은 구름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9

저는 주님의 이 승천이 엘리야의 승천보다 결코 덜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사명을 완수한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하늘에 들어가시고, 대관식을 향해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승천과 함께 그분의 즉위가 시작됩니다. 멀리받던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곧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으로서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영예와 기쁨과 감탄 속에 영접과 환영을 받으십니다. 하늘은 이 단 한 번뿐인 장면, 곧 예수께서 그분이 나오셨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장면의 증인입니다(요한복음 3:13; 6:62). 아들이 다시 집으로 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4-5

이미 그 전에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3:31-32

오순절 10일 전, 그분의 부활 40일 후에 있었던 승천은 그분이 영화롭게 되신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 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영접받으실 때 하늘이 누린 기쁨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 보아도 좋습니다.

승리와 개선

승천은 그분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전투는 끝났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분이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19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22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0

그분의 부활이 이미 완성된 구속의 증거였다면, 그분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채우셨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셨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증됩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내려오셨고, 우리처럼 사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말씀은 그분이 내려가시고 올라가신 일에 대해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이 무한한 거리, 이 끝없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그분의 높아지심도 똑같이 끝이 없어서, 어떤 사람도 결코 이를 수 없었을 만큼 높고 존귀합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늘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길을 열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지금 그곳으로 함께 옮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영예는, 그분의 깊은 낮아지심을 느낄 때에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하늘의 구석구석에서 그분의 이름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그분이 새겨져 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충만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36

이 말씀도 그분의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이 지닌 구원 역사적 차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이 미치는 범위는 온 세상에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독점권을 잃고, 온 세상이 주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구속은 이미 부활에서 하나님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옛 언약의 제사와 섬김을 배경으로 하여,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피의 가치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일과 직접 연결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또는: 피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또는: 피를 통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골고다에서 그분은 자기 피, 곧 자기 생명을 주셨고, 영적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분이 단 한 번 들어가셨고 대제사장처럼 다시 나오지 않으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섬김"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며 창시자이십니다. 누가 이런 숨 막히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또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9

오직 하나님께서 맞아들이시고 그분의 성소에 환영하셔서, 그분의 보좌, 곧 존재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환영입니까! 아들이 33년 만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는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1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영접받지 않으셨다면, 영원하고 흔들릴 수 없는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의 대변 – 땅에서의 구원!

그분은 하늘들을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승천이며, 그것은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분은 모든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선 행렬 속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4-16

그분은 우리가 흔히 그러듯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는: 그들을 대변하심이라, 그들을 위해 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25

하나님의 영: 생수, 보혜사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에 땅으로 보내지기 위한 조건은, 하늘로 올라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38-39

하나님의 영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에서 이 영광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것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우리와 나누실 것이며 이미 지금 우리의 소유인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조금도 알아보거나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의 영광의 정수이며 그 영광이 미치는 작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분은 완성하신 사역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원하십니다.

오순절에 이 영이 오셨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듯이, 바로 이 영을 통해 이날은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1} 하였으니. 사도행전 2:33-35

이날 모든 제자는 한 성령으로 적셔져 하늘에 계신 머리와 연결되었습니다. 머리와 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하고 나눌 수 없는 연합의 그림이자 실재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어야 했습니다. 승천 전에 아직 땅에 계시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미래가 속한 분, 이 영광을 영원히 교회와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머리와 몸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교회가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신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들을 채우고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이 영 안에서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5-7

그분이 우리의 도착을 준비하십니다!

승천은 우리의 소망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곳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이곳을 우리에게 꼭 맞게 하시려고 몸소 돌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것을 주려 하시니,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3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28

여기서 구주께서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집으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그네였고, 자기 사명에 집중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집이 우리의 집도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은 땅이 아니라 그분 곁이 될 것입니다. 한때 땅에 속했던 사람들로써 우리는 그리워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따금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오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신 분으로서 먼저 달려가셨고, 지금은 성소에 계십니다. 성소는 물론 다른 관점에서이지만, 아버지의 집과 같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19-20

앞서 가신 분에게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들을 지나가신 바로 그 길로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분은 처소를 마련하시는 일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일도 몸소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명을 남기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주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시던 순간에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빠뜨림일 것입니다.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6).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자리가 우리에게 나아갈 권세를 줍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끝나 버린 실패자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오시는 분, 살아 계신 승리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11

그분은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 14:4

그분은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에는 자기 보좌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발아래 그분의 모든 원수가 엎드려질 것입니다(요한계시록 3:21).

그분이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이 해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분이 올라가신 날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